

교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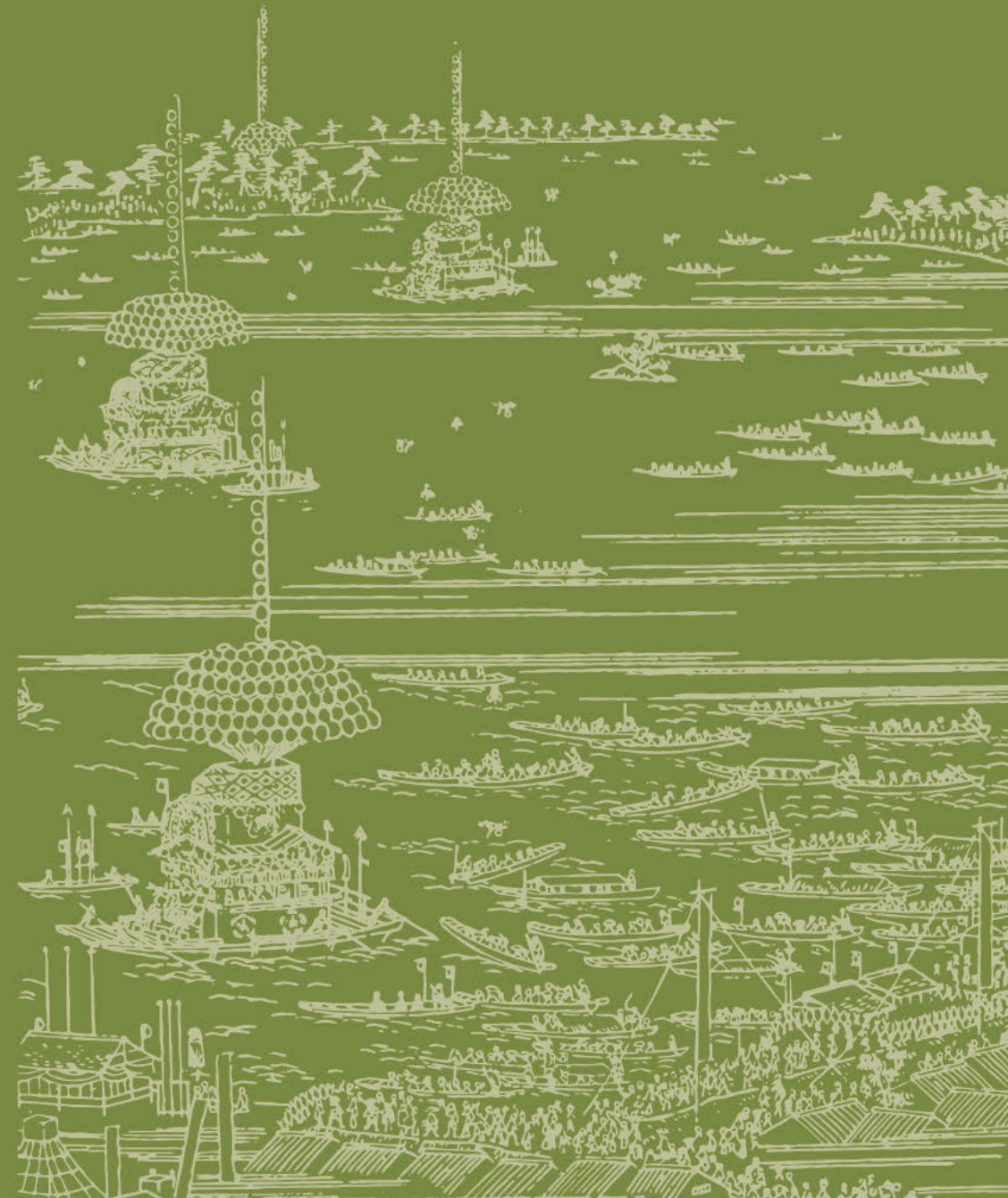


있는 그대로의
쓰시마

관광 고



당신만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DISCOVER TSUSHIMA





 쓰시마의 관광정보를 검색,
투고해 주세요.
#cooltsushima

평범한 일상이
즐거워진 도시 쓰시마

쓰시마

중세부터 근대에 걸쳐 항구도시로 번성하며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한 많은 전국 무장과 깊은 인연을 맺은 유서 깊은 거리“쓰시마”

서기 540년에 창건되어 전국 3000개의 사찰을 가진 덴노 신앙의 총본산 쓰시마 신사. 일본 3대 하천 축제 중 하나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 익숙한 관광 명소뿐 아니라, 1년 내내 평범한 일상이 즐거운“쓰시마”에서 당신만의 매력을 찾아보세요.



4대 마쓰리
4대 마쓰리로 불리는 사계절의 마쓰리는 옛날 쓰시마 신사 앞마을이자 덴노가와 강의 항구도시로 번영한 쓰시마의 풍요로움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쓰시마에 오셔서 축제 분위기를 직접 느껴 보세요.



【개최일/장소】
음력 2월 1일/쓰시마 신사

【개최일/장소】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덴노가와 공원

【개최일/장소】
(밤 축제) 7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축제) 밤 축제 다음날
일요일/덴노가와 공원

【개최일/장소】
10월 첫째 주 일요일과 그
전날 토요일/쓰시마역과
쓰시마 신사 주변

初釜



첫 다회 쓰시마에 뿌리내린 '차' 문화

첫 다회란 새해 들어 다도의 연습을 시작하는 날을 가리키며, 다도의 신년회라 할 수 있습니다. 쓰시마 시내 여기저기서 첫 다회가 치러집니다.

|| 일본의 전통, 상인 가문과 말차 문화

무로마치 시대에 시작된 말차 문화는 에도 시대에 조닌 문화로 뿌리내려, 쓰시마에서는 촌장들이 다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말차 문화는 현재의 쓰시마에 있는 상인 가문에도 남아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기 위한 다실이 있으며, 집에 따라서는 여러개의 다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시마에는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 말차를 즐기는 풍습이 남아 있으며, 다실을 공개하거나 다회를 열기도 합니다. 또한 시내의 화과자 집이나 차 가게에서도 말차를 맛볼 수 있어, 누구나가 쉽게 말차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 쓰시마 신사에 드리는 첫 참배의 효험

첫 다회 외에도 새해 첫 꿈이나 첫 웃음 등, 새해에는 '첫'이 붙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바로 첫 참배입니다. 역병과 재난을 쫓는 장수와 행복의 신, 고즈텐노(우두천왕) 신앙의 총본산인 쓰시마 신사는 정월 3일에만도 약 30만 명의 사람이 방문합니다. 또한 1월 4일부터 7일에 걸쳐 개최되는 니기미타마샤 예제의 '띠 고리 통과하기'는 쓰시마 신사의 신년 행사로, 신사에 세워진 띠 고리를 통과하면 1년 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실(훗타 가문 저택)



차 가게의 말차를 가는 맷돌



말차와 화과자



띠 고리 통과하기

鮎味噌



후나미소 시대를 넘어 전해져 온 향토요리

향토요리에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생활이 한 점시에 담겨 나옵니다. 쓰시마는 그 옛날, 기소가와 강 하구의 항구도시로 번영했습니다. 때문에 붕어, 모로코(잉어의 일종), 장어 등을 쓴 민물고기 요리가 향토의 전통요리가 되었습니다.

|| 팬들이 자주 찾는 민물고기 맛집

후나미소는 붕어와 콩을 굵은 설탕과 적갈색 된장으로 오래 조린 요리입니다. 이 근처는 예전에 물가였기에, 근처의 강에서 잡히는 붕어는 중요한 단백질원이었습니다.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된장을 써서 오래

조리기에 붕어도 콩도 놀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이 지방의 많은 반찬 가게에서는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 쓰시마 명물을 맛보자

쓰시마에는 많은 향토요리와 특산물이 있습니다.



축제 요리 모로코초밥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모로코를 써서 만든 오시즈시(눌러 만든 초밥). 모로코는 진하게 맛을 내어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오래 가게 됩니다. 덴노마쓰리나 가을 축제로 친척, 지인들이 모일 때에 만들어지는 요리입니다.



건더기가 풍부한 찬함 우동
에도 시대에 쓰시마의 주민은 덴노마쓰리나 꽃놀이 철에 우동이나 소바를 도시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도시락을 각색한 것으로 옷칠을 한 찬함에 담긴 수타 우동입니다.



쓰시마에서 시작된 고시즈 파
에도 시대 중기, 쓰시마의 고시즈초 주변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도쿠가와 막부에도 현상되었으며, 아이치현의 전통 야채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유메노카(딸기)
기소가와 강의 비옥한 땅에서 자란 쓰시마 딸기는 알갱이가 크고 모양도 좋은 뿐 아니라 맛도 매우 뛰어납니다.

開扉祭



오미토마쓰리 봄을 알리는 불 축제

|| 박력 만점! 쓰시마의 불 축제

오미토마쓰리는 쓰시마 신사에서 한 해에 치러지는 90개 이상의 제전 중 텐노마쓰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매년 음력 2월 1일에 치러집니다. 직경 1미터, 길이 10미터의 2개의 대형 횃불을 꿰어지고 단숨에 누문을 빠져나가는 웅장한 불 축제로 유명합니다. 횃불이 타고 남은 재는 논이 해충 구제 및 낙뢰 방지, 젓가락으로 쓰면 치통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져, 참배자들이 앞다투어 가져갑니다.



|| 서쪽의 야사카 신사, 동쪽의 쓰시마 신사

옛날에는 고즈텐노사라 불렸으며, 전국에 3000개 이상 퍼져 있는 '쓰시마 신사'의 총본산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에도에서 이세 신궁 참배를 할 때 들러 참배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이세 신궁에만 참배를 하면 반쪽짜리 참배로 여겼습니다. 현재도 '쓰시마상' '텐노상'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연간 약 100만명의 사람들이 '쓰시마 참배'를 하러 옵니다.



쓰시마 신사



쓰시마 신사의 문양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인 마쓰다이라 다다요시의 부인 마사코가 기증한 본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증한 누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기증한 남문

오다 노부나가는 쓰시마 신사를 고향의 신으로 깊이 믿었다고 하며, 오다 가문의 문장과 쓰시마 신사의 문양은 같은 모과 문양입니다. 또한 도요토미 가문, 도쿠가와 가문도 쓰시마 신사에 대한 신심이 깊어 많은 기증을 했으며, 누문과 본전은 모두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真名箸料理



마나바시 요리 신께 바치는 요리

잉어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식칼과 마나바시만으로 요리하는 일본의 전통 기술. 마나바시란 물고기를 요리할 때 쓰는 자루가 달린, 목재나 철재로 만든 긴 젓가락입니다.

|| 잉어 마나바시 요리

쓰시마 신사는 예로부터 음력 2월에 풍년을 기원하는 하루 아가타마쓰리, 음력 11월에 잘 여문 작물에 대한 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키 아가타마쓰리를 거행합니다. 이 아가타마쓰리에는 닛코가와 강변의 12개 마을에서 신에게 바치는 잉어가 봉납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제전

후 신전에서 마나바시와 식칼로 이 잉어를 요리하여 소금, 간 무로 맛을 내 신께 바친 뒤, 참배자들이 먹습니다. 신관이 스스로 요리하는 일은 드물기에 '쓰시마의 잉어 마나바시 요리'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비쭈기나무를 든 4명의 무녀가 선보이는 가구라 춤

쓰시마 신사에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13일까지 다이다이코 카구라가 거행됩니다. '야구모마이' 춤을 추며, 잉어로 만든 '마나바시 요리'를 대접합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당시의 쓰시마 신사의 세습 신관 집안이 기도사로서 전국에 '텐노 신앙'을 포교했습니다. 기도사는 각지의 후원자의 집에서 기도를 올리거나 부적을 반포하고 신도가 쓰시마 참배를 할 때에는 가구라를 주춧하고 참배나 숙박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세습 신관 제도의 폐지와 함께 기도사의 활동이 쇠퇴하여 쓰시마 신사 다이다이코샤가 결성되었습니다. 다이다이코 카구라 기간은 전국 각지의 다이다이코샤에서 온 참배자로 붐빕니다.



야구모마이 춤

藤浪の里



바람에 너울거리는 등꽃 마을
쓰시마의 봄은 오와리 쓰시마 후지마쓰리

가련한 연보랏빛 꽃이 폭포처럼 늘어져, 바람에 너울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등꽃. 예로부터 쓰시마는 '바람에 너울거리는 등꽃 마을'이라 불릴 만큼 등나무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 아름다운 등나무 커튼은 쓰시마의 봄의 상징

너울거리는 등꽃 마을의 추억을 지금에 전하는 것이 매년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걸쳐 거행되는 '오와리 쓰시마 후지마쓰리'입니다. 텐노가와 공원에는 길이 275m, 면적 5,034㎡의 장대한 등나무 시렁이 있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보라색 꽃들이 달콤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등나무 시렁 밑으로 흐르는 수로의 수면에 비치는 등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축제 기간의 밤에는 라이트업이 켜지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환상적인 등꽃의 아름다움은 특별합니다.



흰색, 보라색 가피탄 등꽃

라이트업

|| 진귀한 팔중흑룡등

동양 제일이라 불리는 등나무 시렁에는 구척등을 중심으로 12개 품종 114그루의 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팔중흑룡등은 무척 진귀하여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향이 강하고 통통한 포도처럼 귀여운 꽃송이로, 공원 내에도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분홍 등꽃



팔중흑룡 등꽃

水無月



미나즈키(화과자)

미나즈키
계절마다 다른 화과자 문화

6월은 음력으로 미나즈키라고 합니다. 쓰시마의 시모신텐 지구에서는 예로부터 매실이나 조생 자두 등 과수의 재배가 활발하여 열매가 익을 무렵에는 과일을 쓴 화과자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조슈 잡지'에는 에도 중기 쓰시마의 명산품으로 만주가 적혀 있습니다. 쓰시마에는 말차와 같이 즐길 만한 제철의 화과자나 만주를 취급하는 화과자 집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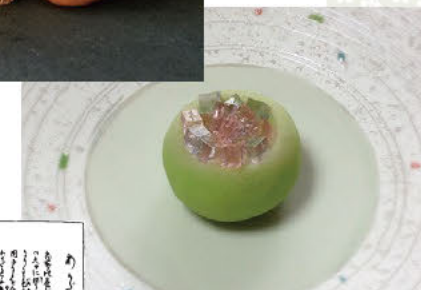
|| 쓰시마 명물 아카다 구쓰와

'아카다(Akada)'와 '구쓰와(Kutsuwa)'는 예로부터 쓰시마 신사의 문전에서 만들어졌으며, 기념품으로 참배객의 오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단단한 과자라고 하며, 쓰시마 신사 주변에서 태어난 과자입니다.

아카다는 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튀긴 심플한 과자입니다. 헤이안 시대에 고보 대사가 전염병 퇴치를 기원하기 위해 쓰시마 신사에 바쳤다고 하며, 참배객이 역병을 피하기 위해 사들인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쓰와는 백미와 찹쌀을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찢 뒤 설탕을 더해 기름에 튀긴 과자입니다. 띠 고리 빠져나가기에 쓰이는 띠 고리를 본뜬 것으로, 신마(神馬)의 재갈을 닮았다 하여 구쓰와(재갈)이라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쓰시마의 화과자



에도 말기 아카다를 파는 모습 (오와리 명소 그림책)



아카다, 구쓰와

尾張津島天王祭



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 등불과 물의 드라마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

일본 3대 강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는 전국의 수많은 여름 축제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고 합니다. 쓰시마 신사의 제례로 60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며, 오다 노부나가도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의 단지리부네 행사'는 국가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에 '야마·호코·야타이 행사'의 하나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7월 넷째 토요일에 '밤 축제', 다음 날인 일요일에 '아침 축제'가 거행됩니다.

|| 호화찬란한 마키와라부네 밤 축제

5척의 마키와라부네의 초롱이 불을 밝히면 밤 축제가 시작됩니다. 배 위에 1년을 나타내는 365개의 반구형의 초롱, 중앙에 높이 기둥을 세우고 1년의 달수를 의미하는 12개의 초롱을 내건 마키와라부네가 유유히 나아가는 모습은 호화찬란한 역사물 그림 두루마리 같습니다.

|| 찬란한 단지리부네 아침 축제

화려하게 꾸민 6척의 단지리부네가 등장. 맨 앞에 있는 배에서 10명의 창을 든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오타비쇼까지 헤엄친 뒤, 쓰시마 신사까지 뛰어 천을 두른 창을 신전에 봉납합니다. 그 봉납한 창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몸에 묻히면 병이나 다친 곳이 낫는다고 합니다.



|| 덴노마쓰리의 흐름

덴노마쓰리는 밤 축제와 아침 축제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거행됩니다.



어린이 행차(밤 축제 전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어린이가 목마를 타고 축제용 배에 가서, 쓰시마 신사에서 축제가 무사히 치러지길 기원합니다.



신여 행차(밤 축제 당일 아침)
100미터에 이르는 화려한 행렬이 이어지며, 쓰시마 신사에서 덴노가와 공원으로 신여(神輿)가 운반됩니다.



어린이 주악(아침 축제 당일)
신여가 귀환한 뒤, 신체(神體)가 돌아온 쓰시마 신사의 배전에서 어린이들의 연주가 거행됩니다.

地藏盆



지조본 여름의 끝을 알리는 지조본

매월 24일은 지장보살의 갯날로, 8월의 우란분제 다음의 갯날을 지조본이라고 합니다. 지조본 행사는 주부, 간사이 지역, 특히 교토를 중심으로 한 긴키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부처님인 지장보살께 감사하고 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기원하는 행사로, 쓰시마 시내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지조본이 개최됩니다. 쓰시마에서 만날 수 있는 지장보살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 미나토초의 육각 지장당

지장보살 상을 6개 늘어세워 모신 6지장이 각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기 드문육각형 초롱형 지장당으로, 옛날, 어떤 집에 도적이 들었을 때, 지장보살이 6명의 승려로 모습을 바꿔 쫓아왔다 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 이마이치바초의 시왕당

여기에는 시왕(十王)과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이 시왕이며, 사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에 떨어질지는 시왕과 지장보살의 대화로 결정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 가미가와라초의 대신 아파주는 지장

눈병 또는 젖을 주는 지장으로신앙이 두터우며, 난산 때는 대신 온 땀을 흘려주기 때문에 땀 흘리는 지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天王川公園



덴노가와 공원 제방을 물들이는 석산

덴노가와 공원에서는 가을의 추분에 맞춰 석산화가 피며, 선명한 꽃의 색이 보는 이를 매료시킵니다.

계절마다 다른 자연과 역사의 정서

덴노가와 공원은 에도 시대까지 당시의 거리를 남북으로 흐르던 기소가와 강의 지류인 덴노가와 강이 막혀 생긴 연못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덴노가와 공원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꽃과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공원을 둘러싸듯 벚꽃이 피며, 골든 위크 무렵에는 등꽃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초여름부터 나카노시마의 다리 주변에는 수련이 피어, 최고 가련한 꽃잎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의 무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가을이 되면 공원 일대가 단풍으로 뒤덮입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면 덴노가와 공원은 평소와는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전하는 덴노가와 팔경

원을 물들이는 계절의 변화는 아름다우며, 사계절의 풍경은 덴노가와 팔경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①영웅의 꿈을 태운 덴노마쓰리 (오와리 쓰시마 덴노마쓰리)



②은빛 눈에 덮인 덴노가와 공원 (눈 풍경)



③주위를 둘러싼 수련 (수련)



④봄결같이 떠 있는 나카노시마 (나카노시마와 미요시지마)



⑤봄빛 만발한 벚꽃 연회길 (제방의 벚꽃 가로수)



⑥수로를 물들이는 등꽃 무리 (등꽃 시령)



⑦옛길의 제방 (나카지 제방의 벚꽃 가로수)



⑧연못을 화려하게 수놓는 모습 (가을의 단풍과 은행)

尾張津島秋まつり



오와리 쓰시마 아키마쓰리 꼭두각시의 최고 기예

오와리 쓰시마 아키마쓰리는 10월 첫째 일요일과 그 전날인 토요일에 개최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내를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마쓰리에서는 나나키리, 무카이지마, 이마이치바, 가모리의 4개 지구에서 호화찬란한 수레 16대가 활기차게 오가는데,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쓰시마 하야시의 곡조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변화무쌍하여 글자를 쓰는 것, 하늘을 나는 것 등, 박진감 넘치는 연기로 관중을 매료시킵니다.



활기차고 기운찬 이시토리마쓰리

기운차게 징과 북을 치며 거리를 오갑니다.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수레는 1915년경, 가라우스초 수레는 195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부, 중부, 남부의 이시토리마쓰리 수레가 한곳에 모이는 쓰시마 신사 누문 앞 '이시토리마쓰리 수레 경연'은 박력 만점입니다.



고도모지시

귀여운 사자 머리에 핫피를 입은 건강한 아이들. 딱따기와 종을 들고 '왓쇼이치로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가구라

지붕에는 용, 사자, 성 등의 조각을 장식했으며, 각 지역에 가구라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위풍당당! 봄꽃 흐드러지는 가모리 수레

분카 시대(1804~18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복숭아빛 꽃에 둘러싸인 호화로운 수레입니다.





MAP6

거리
그리운 풍경

옛날, 쓰시마 신사 앞마을이자 항구도시로 변명한 쓰시마시. 쓰시마의 재력이 전국시대에는 오다 가문을 뒷받침하고 도요토미 가문이나 도쿠가와 가문과도 인연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그때를 회상하게 하는 오래된 거리나 사적이 많이 남아 있어 역사의 향기가 감돕니다.

||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 산책

옛 정취가 남아 있는 혼마치스지 주변은 무로마치 시대부터 변함없는 모습으로, 무질서하게 구부러진 좁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의 모습을 간직한 격자문, 창고, 아네가미 등이 항구도시 및 상업도시로 발전한 증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발전과 함께 사원의 진출이 시작되어, 시내에는 90개 가까운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는 좌선이나 사경(경 베끼기), 사불(부처님 모습 베껴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겨운 3개의 우물

쓰시마는 기소가와 강의 풍부한 물이 가져온 복류수가 많아, 우물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쓰시마의 옛 지도에는 몇 개의 길모퉁이에 우물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들 우물은 에도 시대에 인근 주민의 공동 우물로 쓰였습니다. 수도가 발달됨에 따라 우물의 존재가 잊혀 가는 요즘, 오래된 우물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 중요문화재 핫타 가문 저택

에도 시대 중기에 세워져 쓰시마의 변영을 말해주는 대표적 전통 상인 가문 건축으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저택은 몸채와 흙으로 만든 3채의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에는 화재의 연소를 막는 '동자기둥', 안쪽 현관의 넓은 토방에는 지금은 보기 드문 '조왕신 부뚜막'이 있으며 말차 문화의 상징인 다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MAP7

혼마치스지에는 가미키리, 사카구치초, 도게 신사 3곳의 옛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가미키리 우물



도게 신사 우물



사카구치초 우물



양조
일식을 뒷받침하는 양조 문화

일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본의 술은 SAKE라 불리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술뿐 아니라 간장이나 된장은 일식에 꼭 필요한 존재로, 쓰시마에는 그런 양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 쓰시마의 주조

술의 역사는 길며, 제사에 술이 쓰여 왔기에 술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쓰시마 신사에서 모시는 신인 다케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지키에 등장하는데, 아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할 때 술을 먹여 재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라는 이점뿐 아니라 신사 신앙이 활발했기에 쓰시마에서도 예로부터 주조가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술 가게가 있고 창고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소 삼강 맑은 물의 복류수, 노비 평야에서 얻은 양질의 쌀, 주조에 적합한 기후 풍토의 영향을 받아 깊은 맛을 지닌 술이 됩니다. 예약하면 견학할 수 있는 술 창고도 있어, 주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상업지의 정취를 간직한 노포

술이나 된장 등 일식의 기본이 되는 조미료는 거의가 누룩을 쓴 발효식품으로, 누룩은 일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룩에서 만들어지는 감주는 에도 시대부터 더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양원으로 애용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마시는 링거라 불리며 미용 건강에 효과가 있는 음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마치스지에는 술이나 누룩 등의 양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